올 들어 수지·백현(왼쪽사진)의 듀엣을 시작으로 최근 '야 하고 싶어'에서 호흡을 맞춘 지민·시우민까지 대형 음반기획사들이 유례가 없던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 미스틱엔터테인먼트·FNC엔터테인먼트

대형기획사들도 협업…무너진 '콜라보 장벽'

대형음반기획사들 협업이 느는 이유

수지&백현·조권&수호·지민&시우민 등 뜨거운 반응
신선한 콘텐츠·수익다변화 효과…YG 홀로 무풍지대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가요계 빅4'로 불리는 대형 음반기획사간 컬래버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로 다른 기획사의 가수가 협업하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주로 중소형 기획사들끼리의 협업이 많았고, 대형 기획사간 협업은 그동안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1월7일 JYP엔터테인먼트(JYP) 소속의 미쓰에이 수지와 SM엔터테인먼트(SM) 소속의 엑소 백현이 듀엣곡 '드림'을 발표하면서 가요계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의 조합은 작곡가 박근태의 주선으로 이뤄졌지만, 함께 뭉칠 일 없을 것 같던 SM과 JYP의 협업도 화제였고, 수지와 백현이라는 양사의 간판스타가 뭉쳤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이후 JYP 소속 조권의 2월 신곡 '횡단보도' 뮤직비디오에 엑소 수호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JYP와 SM간의 협업은 계속됐다.

이 같은 흐름에 FNC엔터테인먼트(FNC)도 합류했다. 3일 발표된 걸그룹 AOA 지민의 솔로곡 '야 하고 싶어'에 엑소 시우민 보컬 피처링했다. FNC에 따르면 지민이 '야 하고 싶어' 속 남자의 느낌을 잘 표현해줄 가수로 시우민을 먼저 떠올렸고, SM은 FNC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이 대형기획사간 협업이 계속되면서 가요계에서는 "컬래버레이션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SM이 최근 '스테이션'이라는 음원공개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 새로운 디지털 음원을 발표하는 프로젝트에 윤미래, 에릭남 등 외부가수들을 잇달아 참여시킨 것도 새로운 변화를 느끼게 한다.

대형 기획사에는 소속 가수들이 많아 굳이 외부가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사 가수들끼리 조합해 다양한 협업 음악이 가능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자사 아티스트를 활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자사 소속 신인을 띄우는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 가요계의 리더 자리를 놓고 자존심 경쟁을 벌이는 대형 기획사들이 굳이 손을 잡을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수지, 백현의 컬래버레이션이 가요계에서 신선한 반응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경쟁하면서도 가요계 전반의 현안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동반자 의식을 갖게 된 것이 이 같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로서 늘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골몰하는 이들 대형기획사들에겐 새로운 수익모델이 된다. 수지·백현의 '드림'과 3일 발표된 지민·시우민의 '야 하고 싶어'는 장시간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할 만큼 반향이 컸다.

SM 측은 "새로운 시도와 다채로운 컬래버레이션이 돋보이는 곡들을 선사해 음악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아티스트, 프로듀서, 작곡가들과의 컬래버레이션, 브랜드 대 브랜드로서의 컬래버레이션 등을 통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기획사의 새로운 바람에서 비껴나 있는 '무풍지대'도 있다. 바로 YG엔터테인먼트다. YG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음반을 제작할 때 외부가수나 작곡가의 도움을 받지만, 다른 기획사가 제작하는 음반에 자사 가수나 작곡가를 참여시키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스크린에 쏟아지는 청춘보고서

청년 방황·도전 담은 '글로리데이' '커터' 24일 개봉

류준열과 지수, 최태준 등 청춘의 연기자가 그려내는 '청춘보고서'가 스크린에 차례로 펼쳐진다. 각기 다른 삶을 꿈꾸는 청춘의 고민과 방황, 도전을 담았다.

24일 개봉하는 '글로리데이'(감독 최정열·제작 보리픽쳐스)는 스무 살을 맞은 친구 넷이 경북 포항으로 여행을 떠나겪는 하룻밤 일을 그렸다. 더는 고등학생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성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계에 선 스무 살의 고민을 담았다.

'글로리데이'의 주요 출연진은 영화계 기대주로 통하는 연기자들이다. 특히 류준열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성공 이후 처음 내놓는 영화로 관심을 더한다. 류준열에게도 '글로리데이'는 각별한 영화다. 실제 자신의 경험과 겹치기 때문. 류준열은 "사범대에 진학하려고 스무 살에 재수생활을 했다. 영화에서 다시 재수생 역을 맡아 기분이 남다르다"고 했다.

글로리데이

커터

같은 날 개봉하는 김시후·최태준 주연의 '커터'(감독 정희성·제작 엘픽쳐스)는 또 다른 청년의 모습을 비춘다. 믿었던 우정이, 삶을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냉정하게 비추는 영화다.

'커터'에서는 두 주인공의 성장 가능성도 엿보인다. '소녀', '베테랑'의 조연이었던 김시후의 변신은 물론, 최근 KBS 2TV 주말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서 활약한 최태준 역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겠다는 각오다. 영화 주연은 처음인 최태준은 "연기 인생에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될만한 작품"이라고 '커터'를 소개했다.

이들 영화는 비교적 적은 예산 아래 실험적인 시도도 놓치지 않았다. 신인 감독이 신인 연기자와 손잡고 패기 있는 도전에 나섰다는 사실도 공통점이다.

10일 개봉하는 '히야'(감독 김지연·제작 메이저타운) 역시 서로 다른 삶을 꿈꾸는 형제를 통해 청춘들의 '현재'를 비추는 이야기다. 그룹 인피니트의 호야와 신인 안보현이 주연을 맡았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9년 3월 7일〉

영국 재즈보컬 캐롤 키드의 방한

흔히 '주제가' 혹은 '배경음악'으로 혼용되기도 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음악은 'OST'(Original Soundtrack)로 묶여 대중의 귀를 간질인다. 일반적인 음악 앨범 속 다양한 구성을 갖춘 OST의 원래 의미는 이젠 단일한 음악이나 노래의 대명사가 됐다. 음악이 영화와 드라마를 대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는 물론 그 음악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1999년 오늘, 영국 재즈 보컬리스트 캐롤 키드(사진)가 한국을 찾았다. 캐롤 키드는 영화 '쉬리'의 주제가 'When I dream'을 부른 주인공이다.

'쉬리'는 남북 화해무드를 깨뜨리려는 북한 테러리스트들과 이에 맞선 남한 첩보요원들의 이야기. 한국영화의 흐름을 바꿔놓은 영화는 분단의 비극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첩보요원(한석규)이 그 회한을 삼키는 장면에 흐른 이 노래로도 관객의 감성을 자극했다.

노래는 영화 개봉(1999년 2월13일) 이전인 1998년 12월 말 캐롤 키드가 내놓은 앨범 'Sweetest Love Songs'의 수록곡이었다. 캐롤 키드의 따스한 감성이 한껏 묻어난다.

캐롤 키드는 1960년대 초부터 활동하다 1990년 런던 퀸엘리자베스홀에서 펼쳐진 프랭크 시내트라의 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주목 받았다. 당시 프랭크 시내트라는 "영국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라는 찬사를 보냈다. 1990년 최고 재즈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1998년 영국왕립회원이 되기도 했다. 'When I dream'의 흥행으로 이듬해 첫 내한한 이후 5월에 다시 한국을 찾아 콘서트를 펼쳤다.

그만큼 'When I dream'의 인기가 높아서 그해 8월 KBS 2FM '김광한의 추억의 골든팝스'가 5000여 청취자에게 '20세기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한국영화 음악으로는 최고인 12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한국영화는 1997년 가을 개봉한 영화 '접속'의 사라 본의 'A Lover's Concerto'로부터 영화음악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노래를 담은 OST 앨범이 무려 60만장 이상 팔려나가면서였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Pale Blue Eyes' 등도 히트시킨 영화는 정식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사용한 첫 한국영화이기도 하다.

이후 '약속'은 제시카의 'Goodbye',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은 클리프 리처드의 'Early in the Morning' 등으로도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영화는 본격적인 OST의 시대를 열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마우스

● **"김윤석을 필두로 박유천과도 매일매일 술."** (연기자 한예리)
6일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에서. 영화 '해무'를 함께한 배우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 **"세대차이? 김고은은 최백호의 노래만 듣는다."** (배우 윤여정)
6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20대 김고은과 영화 '계춘할망'을 촬영했지만 "세대차이는 느끼지 못했다"며.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미국정품 ●
강한남자
1회복용 5일지속/캡셀
한통30정 (최저가)
효과 100% 카드 후불제
농협 791-02-067290 김태수
010-7600-4116

부모님, 은사님 해외 선물용 해외 여행시 최고!!

국내최다 3만4천여곡 수록,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대통령상 수상, 25년 역사!
– 한국 28,800곡, 팝송 2,100곡, 중국 2,100곡, 필리핀 1,000곡이 수록 –
최신 가정용 무선 마이크형 노래방
가정, 회식, 야외 다목적 노래방 OK
TV와 연결만 하면 어디나 노래방!
● 최신음원 사용–웅장한 사운드 와 음질
● 가정이든 차량이든–TV와 연결하면 끝
● 무료한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해외동포, 외국인
● 사용하는 동안 최신곡은 평생무료
● 저장팩추가시 인터넷으로 신곡 추가가능
어디서는 TV에 3선만 연결하면 노래방과 똑같이 배경화면, 흥겨운반주, 노래자막까지 나오는 최신마이크형 가정용 노래방입니다. 대형 노래방기기를 축소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각종, 가요, 민요, 가곡, 메들리, 트로트, 발라드, 탱고, 동요, 엥카, 팝송, 군가, 행사곡, 중국노래, 3만4천여곡 수록.
고화질, 잡음없는 음질로 어떠한 노래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퍼스피커 3헤드 1셋트 별도판매

휴대용 가방

메뉴얼 & 곡목집

메인 마이크

전원 어댑터

※고객님께서 소지하신 핸드폰으로 전화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1522-1070 야간·공휴일도 상담환영, 전국신속배송